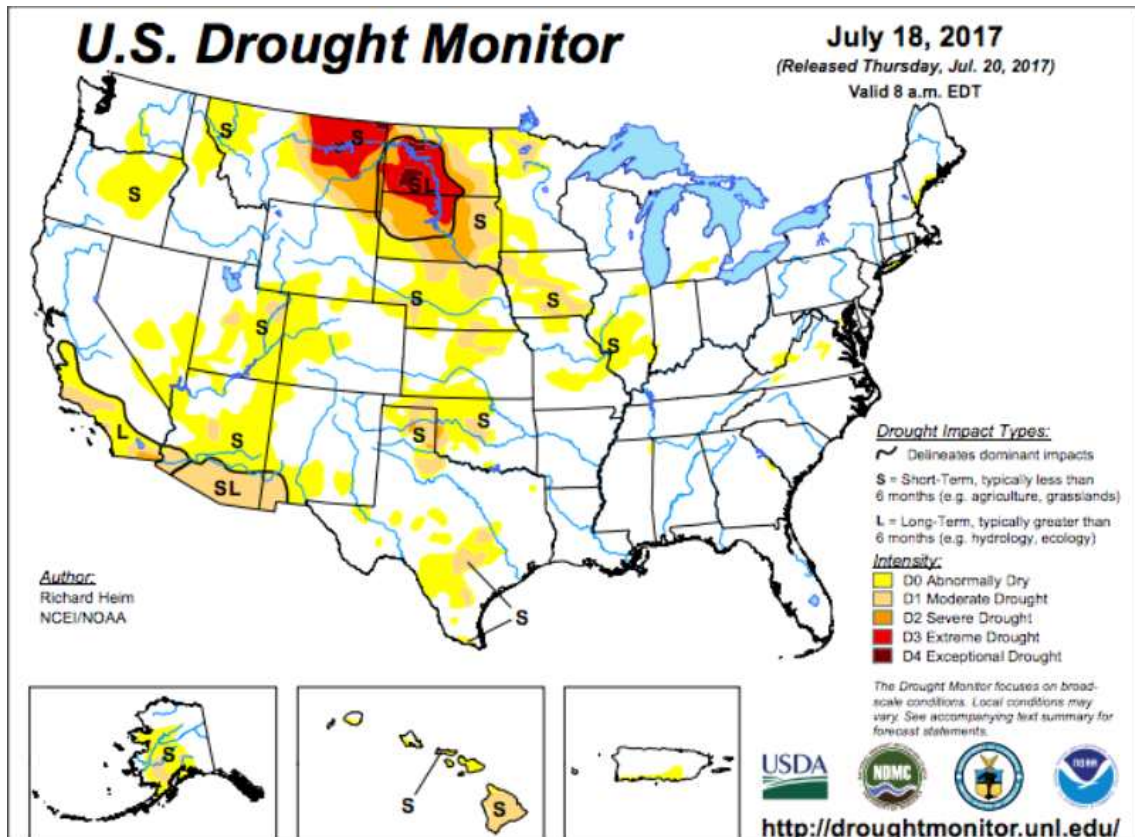


7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6~7/22)

미 대륙 위로 넓게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오대호 인근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보였다. 중부 평원과 미시시피강 일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높았고, 대서양 연안 중부와 북부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중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낮 최고기온이 110°F까지 오르기도 했다. 위스콘신 남부, 일리노이 북부, 아이오와 북동부, 미네소타 남동부 등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잠시 시켜주기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와 남부 평원 및 중남부 일대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고, 남동부의 남부 일대와 미 대륙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및 남동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서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3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Mariposa County에서 발생한 산불로 75,000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다코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17~7/23)

주요 옥수수 재배지와 대서양 연안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또는 평년에 비해 1.5인치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 플로리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5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다코타 일대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이 일대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대평원 일대와 미시시피강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반면, 북서부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씨를 보였다.

□ 세계 기후 현황(7/16~7/22)

■ 유럽: 잉글랜드 남동부, 프랑스 동부, 폴란드 등에서는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초여름 기승을 부렸던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4~3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 재배 중인 옥수수, 해바라기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서부와 중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서부와 중부에서 재배 중인 해바라기의 생육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부 유럽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세르비아 북부, 루마니아 서부 등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낮 최고기온이 39°C까지 올랐다. 헝가리와 다뉴브 강 하류 일대에서는 7월 초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또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고, 러시아에서는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농지에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비가 그치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는데 지난봄과 초여름에 기승을 부렸던 가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간 적정 수준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옥수수, 대두 등의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20~7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보더 북부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몰도바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벨라루스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북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내몽고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40°C 내외까지 오르내렸는데, 내몽고의 경우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려 더위가 주춤했다. Liaoning, Jilin, 내몽고 인근 지역 등에서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Heilongjiang 동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서부의 내몽고 북부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중국의 주요 옥수수, 대두 재배지역인데,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몇차례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렸고, 일본 북부의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도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25~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서 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호주 및 빅토리아 일대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지역에서는 5~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퀸즈랜드에서는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수확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동부와 남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Buenos Aires 남부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북동부의 Corrientes, Misiones 등에서만 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부의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고 5°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였다. 북동부의 면화 재배지역인 Chaco 등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6%p 정도 앞서서 수준이다. 밀의 파종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p 앞서고 있다.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에 비해 9%p 앞서고 있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다. 남부의 Parana에서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낮았고, 밤 동안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졌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7일 기준 밀의 개화률은 29%였고, 옥수수의 수확률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하권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Rio Grande do Sul에서는 밀의 동해 피해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ato Grosso에서도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내륙의 Santa Catarina 등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커피와 사탕수수 등의 수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월 21일 기준 Mato Grosso의 옥수수 수확률은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앞서서 수치이다.